

##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(SB58) 참가

- 제28차 기후변화총회(2023. 11월, 두바이) 준비를 위한 사전 협상 진행
- △파리협정의 이행을 종합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(GST) △정의로운 전환 △전지구적 적응 목표 △손실과 피해 재정지원체계 등 논의

□ 2023.6.5.(월)-6.15.(목) 간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(Bonn)에서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(SB58: The 58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)가 개최, 금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 되는 제28차 기후변화총회(COP28) 핵심 의제들을 사전 조율하였다.

※ (2대 부속기구) “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(SBSTA: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)” 및 “이행을 위한 부속기구(SBI: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)”

- 당사국간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및 파리협정(Paris Agreement) 위임사항,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(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) 회의 개최

○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(observer), 국제기구, 비정부기구(NGO), 언론 등 총 5,000여명(당사국 2,500여명) 참석

○ 우리나라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\*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

\*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해양수산부, 기상청 등 총 7개 부처 및 12개 관련 기관

□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, 적응, 전지구적 이행점검(GST), 정의로운 전환,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이슈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,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(EIG)\* 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이행 방안 구체화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.

\* 2000년부터 우리나라, 스위스, 멕시코, 리히텐슈타인, 모나코, 조지아 등으로 구성된 유엔기후변화협상 그룹

- 금번 회기에는 우리나라가 2021년에 유엔에 제출한 제4차 격년갱신 보고서(BUR)에 대한 「촉진적 의견 공유(Facilitative Sharing of Views, FSV) 워크숍」이 개최되었으며, 우리 대표단은 △국가현황 △온실가스 인벤토리 △감축정책 및 효과 △국제협력 △2024년부터 강화된 국제 사회 보고체계(ETF)로의 전환 및 이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, 당사국 (EU, 영국, 독일, 일본, 싱가포르 등)들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다.
-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△' 22년 신정부 임기 시작 이후에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(NDC, 2018년 대비 40%) 유지, △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이행계획 강화, △배터리, 전기차, 에너지효율, 청정수소, 원전 등의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속 노력을 소개하고, △재정지원,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 현황 등을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우리 대표단은 호주, 캐나다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,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김효은 대사는 호주 기후변화 협상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-호주 기후변화대화 설치 및 산불대응 관련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. 특히, 효과적인 산림 관리, 산불 예방 및 산불 대응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및 COP28 계기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.
- 또한, 우리 대표단은 캐나다 대표단을 면담하여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, 양국 간 산불 및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한편 우리 대표단은 금번 부속기구회의 계기 인도네시아, 가나, 라오스, 방글라데시, 네팔, 콜롬비아, 세네갈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, △파리협정 제6조하 자발적 협력(국제감축사업 등), △과학기술 협력, 온실가스 측정·보고·검증(MRV) 관련 역량배양 등을 포함하는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동 협의를 통해 우리 대표단은 상대국의 협정 체결 의향을 확인하고 구체 문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, 이후 관련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금번 부속기구회의 협상은 파리협정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지에 힘입어 분야별 협상에 진전을 만들어 냈다.

- (전지구적이행점검(GST)\*) 온실가스 감축, 적응, 이행수단(재원, 기술, 역량배양) 분야를 중심으로 파리협정의 이행에 대한 당사국간 이해를 제고하는 ‘제3차 기술대화(Technical Dialogue)’ 를 진행하였다. 이로써 GST의 기술평가 단계는 마무리되었으며, 당사국은 파리협정 목표와 이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향후 이행방안을 포함하는 GST 결과물 도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
\* Global Stocktake: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·평가하는 절차로 ‘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시행

- 올해 COP28에서는 고위급 행사를 통해 GST의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하고, 제1차 GST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채택할 예정이다.
- 다만, 개도국은 파리협정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, 형평성, 역사적 책임을 지속 주장함에 따라 합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(정의로운 전환) 작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7)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(JTWP\*)을 향후

어떻게 설계(design) 및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.

\*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

- 동 프로그램을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각국이 국내적으로 이행해 나갈에 있어 **유용한 정보 및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** 형식으로 운영해나갈지, 선진국이 개도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제로 지원하는 **포괄적인 협의체**로 운영해 나가야 할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, 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(감축) 감축 의욕(ambition) 및 이행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작업프로그램(MWP) 하 첫 번째 글로벌 대화체(Global Dialogue)\*를 개최하여,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**주요 영역별 감축 방안**을 논의하였다. 이어 투자 중심 이벤트(Investment-focused event)를 개최하여 투자자와 투자처 연계, 민간투자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  - \*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국별 도전과제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경험 기반 학습 추진
  - ※ 쟁점이 되었던 ‘감축 의욕 및 이행 작업프로그램’ 의제는 개도국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
- (적응) COP27에서 설립에 합의한 ‘**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**’의 구성 요소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전지구적 적응목표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**정량적인 세부 목표(target)와 지표(indicator)의 설정 등 종합적인 구성**을 원하는 개도국과 정량적 목표 설정은 어렵다는 선진국 간 이견이 있었으며,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구성안을 바탕으로 COP28에서 프레임워크의 세부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.
- (기후재원) ‘25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(NCQG\*) 수립과 관련하여 제6차 기술전문가대화(TED, Technical Expert Dialogue)를 개최하여 기후재원 규모 산출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\* COP26(’ 21년)에서 당사국들은 ’ 22 ~ ’24년 동안 매년 네 차례의 기술전문가 대화 및 한 차례의 고위급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재원 목표를 논의하기로 합의
  - 기후재원 규모 산출시 하향식(Top-down) 접근법(글로벌 총 투자수요 등

반영)과 상향식(Bottom-up) 접근법(개별 개도국 수요 합산)을 조화롭게 활용하고, 관련 정보 공백의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(손실과 피해) 제2차 글래스고 대화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원체계\* 마련 방안에 대해 당사국과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

\* COP27( '22년)에서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(fund)을 포함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에 합의하였으며,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별도 준비위(Transitional Committee)를 구성하여 논의하고, 이를 COP28(' 23.11~12월)에 상정하기로 결정. 제2차 글래스고 대화의 내용은 준비위 논의에 주요 투입자료(input)로 활용

- 한편, 손실과 피해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(Santiago Network)의 사무국 선정\*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COP28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.

\* △카리브개발은행(CDB), △UNDRR-UNOPS 컨소시엄

- (국제탄소시장) 파리협정 하 국제탄소시장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('21.11. COP26에서 합의)의 △허가 변경 절차, △등록부 간 연결 △배출회피의 정의 △감축실적 승인 시점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당사국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SB59('23.12.)이전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, COP28에서 기술 지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.

- (기후기술) 지난 2년간 합의가 불발되었던 기술-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의제에 대해 ▲기술메커니즘의 대규모 기술협력 사업제안서 마련, ▲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\*를 통한 성과 창출, ▲기술-재정 메커니즘 연계를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워크숍 개최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문 도출에 성공하였다.

\*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구성 기구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이행기구인 CTCN의 세계 최초 지역사무소로, 한국 송도에 설립·운영 중 (' 22.7월~)

- (해양) '제2차 해양 기후변화 대화' 를 통해 블루카본 등 연안

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및 식량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유엔 기후변화 레짐 하 해양의 역할 강화, 해양에서의 기후행동 촉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.

- 우리나라는 갯벌의 블루카본 인증 필요성 및 블루카본 추진전략, 총허용어획량(TAC) 제도 및 친환경 어선 개발 등 수산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소개하였다.

\* 해양 이슈는 우리나라와 모나코가 환경건정성그룹(FIG) 내 공동의장 역할 수행. 끝.

담당 부서	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	담당자	팀 장	조은정 (02-2100-7859)
	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	담당자	팀 장	정호경 (044-201-6600)
	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	담당자	과 장	정혜경 (044-215-8750)
	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	담당자	과 장	윤진영 (044-203-4890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	담당자	팀 장	이찬영 (044-202-4511)
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	담당자	과 장	오행록 (044-200-5280)